

## Neglectful Parenting and Depressive Mood in 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 of a Rights-Respecting School and Self-esteem -

Han Byeol Yu<sup>#</sup>, Sang Won Kim<sup>+</sup>, Yang Hee Le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eglectful parenting, rights-respecting school environment, self-esteem, and depressive mood,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ights-respecting school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lectful parenting and child's depressive mood. The responses from 3,799 elementary school students (4th-6th grade), extracted from the 2016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were used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findings, children with neglectful parenting we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depressive mood. A rights-respecting school environment and self-esteem significantly mediated the pathway between neglectful parenting and depressive mood in children, a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was also significant. This finding contributes to promoting public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against neglectful parenting. Further, the establishment of a rights-respecting school environment and self-esteem training was suggested to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 of child neglect.

**Key words:** neglectful parenting, rights-respecting school environment, self-esteem, children

### 1. 서론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8,700건으로 전 해에 비해 약 59.6%가 증가했으며, 이는 최초로 학대현황이 조사되던 해인 2001년을 기준으로 약 8.9배 증가한 수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하위 유형별로 학대 발생률을 살펴보았을 때, 방임(15.6%)은 중복학대(48.0%)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19.2%)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Erickson, *et. al.*, 2018; Park, 2014; Wolock & Horowitz, 1984; Woo, 2017). 하지만, 방임은 아동의 삶에 위협적이다. 방임적 양육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우울, 불안, 섭식장애, 아동기 품행장애를 포함한 정신 병리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며 약물사용 및 자살 시도와 관련성도 보고된 바 있다(Jo & Hyun, 2005;

<sup>#</sup> The 1st author: Han Byeol Yu, Tel. +82-2-760-0719, Fax. +82-2-760-0525. e-mail, [yhb7537@skku.edu](mailto:yhb7537@skku.edu)

<sup>+</sup> Corresponding author: Sang Won Kim, Tel. +82-2-760-0719, e-mail. [sagwoninkorea@gmail.com](mailto:sagwoninkorea@gmail.com)

Norman, *et. al.*, 2012; Yoon, 2017). 특히, 방임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 이후 학교 부적응 또는 자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방임은 아동의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2018; Lee & Yoon, 2016). 또한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2016년 학대로 사망한 총 50건의 사례 중 22%는 방임이 원인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방임적 양육방식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 중 우울감은 국내외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지목된다(Ah & Park, 2018; Infurna, *et. al.*, 2016; Jung & Lee, 2016; Jo & Hyun, 2005; Khaleque, 2015; Kim, 2009; Kim, 2015; Kim & Lee, 2018; Kim & Yoon, 2014; Lee & Yoon, 2016; Oh, 2016; Park & Sung, 2014; Shin & Hong, 2014; Woo, 2017; Yoon, 2017). Jo & Hyun(2005)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하거나 무관심할수록 자녀의 우울성향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대 하위 유형 및 방임을 포함하여 우울감과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방임이 우울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Hong & Yim, 2016; Kim, 2015; Kim & Lee, 2018; Kim & Yoon, 2014).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방임과 우울감 간 관련성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며(Infurna, *et. al.*, 2016; Maguire, *et. al.*, 2015), 방임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위축 등 다양한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방임이 정서문제 중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Jung, *et. al.*, 2014; Kim, 2015; Yoon, 2017).

앞서 제시한대로 방임과 우울감 간 정적인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지만, 방임적 양육을 경험하는 아동이 모두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방임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한편, 매년 발간되는 전국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방임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또한, 방임은 상혼이나 그 피

해가 즉각적이거나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아내기 쉽지 않다(Erickson, *et. al.*, 2018). 방임이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발견이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방임이 우울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는 Gordon(1983)이 제안한 3단 중재(Three-tiered interventions) 중 보편적인(universal) 중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의 약 97%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점(e-country index, 2018)은 학교가 보편적 중재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학교는 아동이 가정 다음으로 다른 대상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다(Onwuegbuzie, *et. al.*, 2013).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인 환경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학생들이 더 잘 적응하거나 건강한 발달수준을 보인다. 최근 아동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나 교실 등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Cheon & Park, 2016; Fiorvanti & Brassard, 2014; Hong, *et. al.*, 2016; Hyun, 2016; Park & Choe, 2017). Hong과 그 동료들(2016)은 구성원이 상호 간 서로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인권친화적 교실에서 부적 감정을 가진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학교가 애정과 자극이 결여된 방임적 양육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암시해 준다.

실제로 방임을 경험할수록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들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Koo, 2016; Song, *et. al.*, 2015). 그러나 가정 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더라도 학교에서 또래 또는 교사 등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경험을 통해 적응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Kim & Jo, 2016; Lee & Yang, 2017). 구체적으로, 교사 또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아동이 학교 또는 학교의 구성원들과 연결된 정도가 클수록 우울감과 부적 상관을 갖는다(Li & Learner, 2011; Park, 2010).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방임적 양육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학교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통해 방임과 우울감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Kim, 2015; Kim & Yoon, 2014; Woo, 2017).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산물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Rosenberg, 2017),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 한다(Park, 2014; Sohn & Heo, 2016).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우울, 분노정서와 같은 정서문제 감소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Kim & Chung, 2015; Kim & Lee, 2013; Kim & Lee, 2015),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rsoy, 2018; Kim & Lee, 2018; Moon, 2014; Woo, 2017). 관련하여 Park(2014)은 자아존중감이 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Woo(2017)도 학대 및 방임경험이 자아존중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나,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설명하였다(Sohn & Heo, 2016; Won & Gong, 2017; Lee, *et. al.*, 2018; Hyun, 2016). 앞서 제시한 연구들에 더하여 방임적 양육환경에 노출될수록 학교에서의 차별경험 등으로 인해 학교 역시 본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Koo, 2016; Song, *et. al.*, 2015), 아동이 학교를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장소로 인식할 때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연구(Cheon & Park., 2016; Hyun, 2016; Lee, *et. al.*, 2018; Park & Choe, 2017)는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이중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방임적 양육경험에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뿐 아니라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학교환경을 통해서도 자아존중감이 영향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실천적 개입의 방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이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매개변인으로서 역할 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을 아동방임과 함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설을 세워 방임과 우울 간의 경로를 이중 매개하는지도 함께 탐색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방임적 양육,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감 간의 관계들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통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재하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존중 받는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Le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 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모델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적 양육경험은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방임적 양육경험이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셋째, 방임적 양육경험이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방임적 양육경험이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은 이중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방임적 양육방식에 노출된 아동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경험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방임에 의해 우울을 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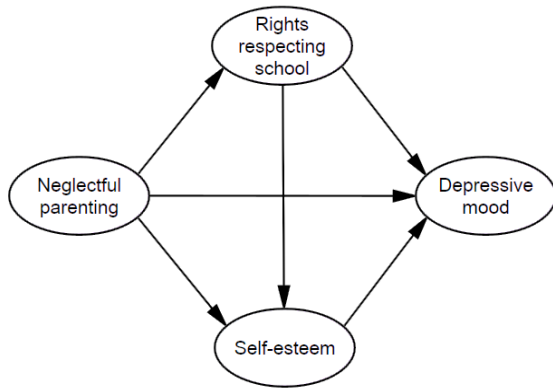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방임과 우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하위유형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17조 6항)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본 연구에서 유기는 논외로 한다. 방임은 다른 유형의 학대와 달리 상흔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나(Erickson, *et. al.*, 2018), 선행연구에서는 꾸준히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되어오고 있다. 방임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개념, 공격성, 우울 등 정서문제, 그리고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아동의 삶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한다(Jeong & Kim, 2017; Jung & Lee, 2016; Lee & Yoon, 2016).

Cicchetti & Toth(1998)는 방임과 우울의 관계를 애착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은 물리적인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어

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아동의 정신적 표상이다(Bowlby, 1969;1982). 어린 시절 애착의 질은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Cicchetti & Toth, 1998), 방임적 양육을 받은 경험은 아동이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Sutton, 2018). 즉,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주 양육자와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타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심상을 내재화할 수 있다(Wenar & Kerig, 2011). 나아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우울감과 관련된 아동의 인지·정서·생물학적 발달을 취약하게 만들어 아동이 우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Wenar & Kerig, 2011).

아동기 방임 경험은 그 당시의 우울감 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Brown, *et. al.*, 2018; Salokangas, *et. al.*, 2018). Sperry & Widom(2013)은 0-11세 사이에 여타 유형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을 추적하여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 아동기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성인기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Lee & Kim(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임을 포함한 아동기 외상경험과 우울성향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아동기 방임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 우울에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Infurna, *et. al.*, 2016). 이와 같이 방임이 우울감에 일관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은 해당 경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실질적 개입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 2.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의 역할

방임적 양육의 경험은 아동이 우울감을 겪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지만 방임을 경험한 아동 모두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

니다. 이는 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존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Kim, 2015; Kim & Yoon, 2014; Woo, 2017). 선행연구에서는 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친구 소외와 같은 개인 외적 요소가 매개변인으로서 탐구되어온 바 있다(Hong & Yim, 2016; Kim, 2015; Lee, *et. al.*, 2016; Park, 2014).

학교는 아동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환경인 미시 체계에 속한다(Onwuegbuzie, *et. al.*, 2013).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또래 및 교사와 맺는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에게 있어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며 (Joslyn, 2015), 가정 내 적절한 자극이 결여된 방임적 양육환경에 놓인 아동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선행연구는 방임적 양육환경에서 성장할수록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Koo, 2016; Song, *et. al.*, 2015). 그러나 학교에서 존중받은 경험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연구(Lee, *et. al.*, 2018), 학교에서 인권침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 미친다는 연구(Lee, *et. al.*, 2015), 그리고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관여되어있을수록 우울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Li & Lerner, 2011; Park, 2010)는 방임적 양육경험이 학교가 아동권리를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통해 우울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학교폭력피해나 교사 차별과 같은 교내 인권침해경험이 우울 및 자살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등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다(Ah & Park, 2018; Lee & Choi, 2016).

Hyun(2016)은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을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학생의 참여가 존중되는 환경으로 설명하면서,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 간 상호 존중하는 환경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하여 친인권적 교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Kim & Park(2014)은 친인권적 교실 문화의 구성 요소로서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학생과 학생 간 관계, 학급에서의 의사결정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의 구성요소로 교사로부터 존중, 또래 간 상호 존중, 그리고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환경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가정 내 아동방임 및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차별 및 학교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Han & Jang, 2017; Koo, 2016), 학교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으로 마련되었을 때 우울감과 부적으로 연결되므로(Li & Lerner, 2011; Park, 2010), 한 모델 안에서 해당 경로 검증을 통해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이다(Choi & Song, 2010;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Choi & Song, 201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동은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Choi & Song, 2010).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가정환경, 특히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Choi & Song, 2010; Shaffer & Kipp, 2014). ‘친밀한, 민주적,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으로 표현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지만, ‘엄격한, 권위적, 통제적, 적대적, 거부적’으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 Kim, 2018; Min & Kang, 2015; Park, 2017). 방임적 양육방식의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Jung & Lee, 2016; Kim, 2009; Kim & Han, 2017; Kim & Lee, 2018; Maguire, *et. al.*, 2015; Oh, 2016; Park & Kim, 2018), Lee(2014)와 An(2014)은 방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른 학대 유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방임적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우울, 분노정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 정서조절능력뿐만 아니라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 스마트폰 과다사용, 학교생활적응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A, *et. al.*, 2019; Kim & Chung, 2015; Kim & Lee, 2013; Kim & Lee, 2015; Lim, *et. al.*, 2018; Park, 2011; Shin & Kang, 2018).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은 낮아지는데(Ersoy, 2018; Kim & Lee, 2018; Moon, 2014; Woo, 2017), 이러한 영향력은 중단 연구에서도 확인된다(Ju & Lee, 2018; Park & Kim, 2018).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임적으로 양육된 경험은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 Park(2014)은 방임과 우울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이 지각한 방임과 우울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 4.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역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적절한 보살핌이 결여된 가정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특별한 특징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Covell, 2010; Lee & Kim, 2013).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이 학교를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곳이라고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

다(Cheon & Park, 2016; Hyun, 2016; Lee, *et. al.*, 2018; Park & Choe, 2017). 이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자아존중감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Rosenberg의 연구(2017)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반대로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Ah, 2016; Shin & Choi, 2019). 구체적으로 교사의 인권존중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으며(Ha, 2011), 교내 자유로운 의사 표현, 민주적 학생회 활동, 학교 학칙의 민주적 규정 등 참여권 중심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일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나타났다(Lee & Mo, 2012; Park, 2010). 종합하면, 방임적 양육방식이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관계에서 아동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2016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응답을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본 연구는 그 중 초등학교 4~6학년 3,799명의 응답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방임적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방임적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다음의 네 문항을 활용하였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원 데이터에 방임 문항으로 포함된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는 아동 연령에 따라 방임을 측정해 있어 적절한 문항인지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역시 0.3 미만의 값이 나와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방임적 양육방식의 개념은 아동복지법(2019)에서 제시한 유기를 제외한 방임의 정의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한 번도 없음, 3=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3회 이상)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석한다. 방임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61이다.

### 2)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제시된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과 ‘학교에서의 학생참여 및 존중경험’ 문항을 조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학생과 학생 간 관계, 학급 내 의사결정으로 조합된 인권 친화적 교실 문화의 정의를 통해서도 지지된다(Kim & Park, 2014; Hyun, 2016). 총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를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67이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제시한 다음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자아존중감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0이다.

### 4) 우울감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로 구성된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인지한 우울감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한다. 해당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87이다.

### 5)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년, 성별(남자가 준거집단), 경제적 수준, 학대(학대를 경험한적 없는 응답이 준거집단)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Cho, 2016; Jung, et al., 2014; Jung & Lee, 2016; Shin & Hong, 2014; Yoo & Chung, 2014). 경제적 수준은 아동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하였으며, 응답보기는 ‘매우 못산다(1점)’부터 ‘매우 잘산다(7점)’까지로 이루어졌다. 학대의 경우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와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보고 할 경우 ‘1’

로 더미 코딩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방임적 양육방식,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plus 7.4를 이용해 <Figure 1>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Chi-square,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TLI),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CFI값과 TLI값은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하며, RMSEA값은 0.8 미만일 때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그리고 0.5 미만일 때 좋은 적합도로 간주한다(Hong, 2000). 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편이가 조정된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준거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편이가 조정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측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려진 목록별 삭제(listwise deletion), 평균 대체(mean imputation)에 비해 효율적이고 덜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식으로 처리하였다(Baraldi & Enders, 2010).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총 3,799명의 응답자 중 48.6%가 여학생으로 성별에 따른 참여비율이 유사했다. 학년에 따라서도 4학년 32.4%(1,229명), 5학년

34.5%(1,312명), 그리고 6학년 33.1%(1,258명)로 고르게 분포된 편이었다. 응답자 부모의 학력에 대해서 절반 정도(43.5%)가 모른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부모님 중 한 분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응답(24.1%)이 가장 많았다. 아동이 인지한 가정형편(경제 수준)은 ‘보통이다’에 표시한 응답자가 28.9%(1,097명)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못산다’에 표시한 응답자가 0.1%(1명)로 가장 적었다. ‘매우 잘산다’고 답한 응답자도 15.1%(575명)가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35.1%(1,335명)는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방임문항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M = 1.16$ ,  $SD = 0.55$ ), 부모님이 학교에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M = 1.04$ ,  $SD = 0.31$ ).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은 총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해 준다는 응답 평균( $M = 3.51$ ,  $SD = 0.66$ )이 가장 높았고, 학교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M = 3.19$ ,  $SD = 0.67$ ). 자아존중감 문항과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편이었는데, 그 중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M = 3.13$ ,  $SD = 0.84$ ). 마지막으로, 우울감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문항 모두가 유사한 평균값을 보였으나, 그 중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M = 1.56$ ,  $SD = 0.83$ ).

### 2.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연구모델의 추정 가능성 및 적합도를 검증하였다(Kline, 2011; Moon, 2009). 그 결과 chi-square = 689.76 ( $df = 71$ ), CFI = 0.96, TLI = 0.95, 그리고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odel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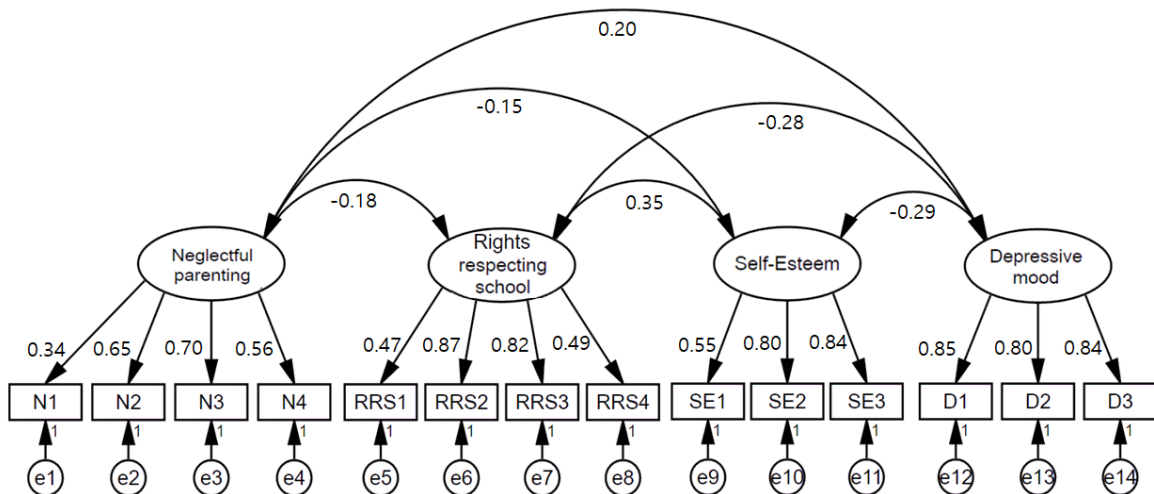
Latent variable	Items	Mean	SD	Range (Min-Max)
Neglectful parenting	I sometimes wear dirty clothes or sleep in a dirty bed	1.16	0.55	1-5
	My parents/caregivers leave me alone when I am sick	1.08	0.40	
	My parents/caregivers do not care when I do not have meals	1.10	0.47	
	My parents/caregivers do not care when I am absent from school	1.04	0.31	
Rights respecting school	Friends from school respect and show consideration to me	3.19	0.67	1-4
	Teachers respect students	3.51	0.66	
	Teachers treat students fairly	3.43	0.71	
	School change or create classroom rules considering students' opinions	3.21	1.09	
Self-esteem	I am a valuable person like other people	2.97	1.04	1-4
	I have various strengths	3.07	0.86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self	3.13	0.84	
Depressive mood	I sometimes feel lonely without any reason	1.56	0.83	1-4
	I sometimes feel anxious without any reason	1.50	0.80	
	I sometimes feel sad or depressed without any reason	1.51	0.82	

※ Source: 2016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2016).

RMSEA = 0.05(0.045- 0.051)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이었다. 즉,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에 의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명되는 편이었으며, 잠재변수들 간에도 0.35 이하의 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준의 변별적 타당성을 보였다.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지수는 유의도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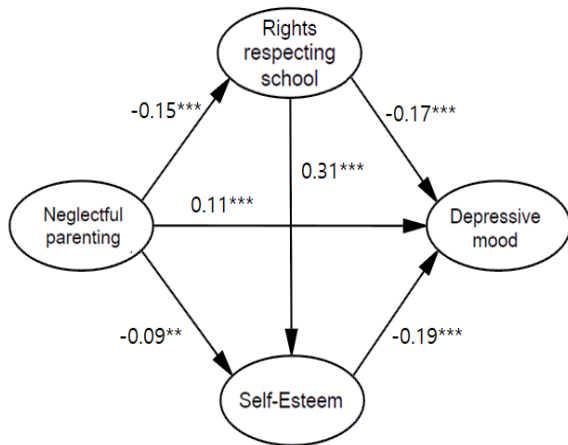
### 3. 구조모형

방임적 양육,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자아 존중감, 그리고 우울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chi^2 = 1029.25$  ( $df = 111$ ), CFI = 0.94, TLI = 0.92, RMSEA = 0.05 (0.045- 0.050)로 도출되어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모델에는 학년, 성별, 경제적 수준, 학대 경험 여부가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동은 방



Note: All standardized estimates are significant at  $p = 0.001$  level

Figure 2. Measurement model



\*\*p < .01, \*\*\*p < .001  
Figure 3. Structural model

입적으로 양육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다 ( $\beta = 0.11, p < .001$ ). 그리고 방임적 양육을 받은 아동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분위기를 인지한 정도가 낮았고( $\beta = -0.15, p < .001$ ),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beta = -0.09, p < .01$ ). 그러나 아동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분위기를 인지할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beta = 0.31, p < .001$ ), 우울감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17, p < .001$ ).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 = -0.19, p < .001$ ).

4.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도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첫째, 개인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

경은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B = 0.10, 95\% \text{ BC C.I.} = 0.06 \sim 0.15$ ). 즉, 방임적 양육방식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분위기를 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학교를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으로 인지하는 것은 우울감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6, 95\% \text{ BC C.I.} = 0.03 \sim 0.11$ ). 아동은 부모에게 방임적으로 양육될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방임적 양육방식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동 경로에서 아동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3, 95\% \text{ BC C.I.} = 0.02 \sim 0.06$ ). 즉, 방임적 양육방식을 경험할수록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을 인지할 경향이 낮았지만, 학교를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으로 인지했을 때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나아가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초등학교 4-6 학년 응답을 이용하여 방임적 양육방식,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Table 2. Mediating effect of rights respecting school and self-esteem in the pathway from neglectful parenting and depressive mood

Pathway	Estimates (B)	S.E.	Bias-corrected 95% C.I.
Neglect → Rights respecting school → Depressive mood	0.10*	0.03	0.06 ~ 0.15
Neglect → Self-esteem → Depressive mood	0.06*	0.02	0.03 ~ 0.11
Neglect → Rights respecting school → Self-esteem → Depressive mood	0.03*	0.01	0.02 ~ 0.06

Note: Neglect = Neglectful parenting  
\*p < .05

방임적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이 인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방임경험은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지지된다(Infurna, *et. al.*, 2016; Khaleque, 2015; Lee, 2017; Yoon, 2017). 방임을 경험한 학령기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적·행동적·인지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방임과 우울의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났다(Maguire, *et. al.*, 2015). 방임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탐색한 메타분석연구에서도 방임은 내재화 문제 중에서도 우울감과 관련성이 높았다(Yoon, 2017). 이에 따라 아동이 우울감을 보일 때 방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를 알 수 있다. 또한, 우울은 이후 아동의 낮은 학업 수행, 심리사회적 기능 저하,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정서 문제이다(Birmaher, *et. al.*, 2007). 즉, 아동의 우울감이 추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우울감에 개입하기 위한 준비는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아동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아동방임 및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교내 차별 및 폭력 등 아동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Koo, 2016; Han & Jang, 2017), 학교에서 주요한 대상과 지지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긍정적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Lee & Yang, 2017). 실제로 학교 내에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학교를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을 때 아동의 안녕감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orvanti & Brassard, 2014; UNICEF, 2018). 우리나라 아동 중 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은 97%에 이르며, 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과 본

연구 결과를 연결지어 본다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은 취약한 가정환경(즉, 방임)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학교에서 이중적 취약 상황에 놓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비준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8조 제2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며(OHCHR, 1989), 아동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아동권리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OHCHR, 2011).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체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학습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조성은 학교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요청되며,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Ministry of Education, *et. al.*, 2014).

셋째, 아동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An, 2014; Kim & Han, 2017),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ung, 2015).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우울감을 경험할 경우, 방임적 양육방식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함께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때, 부모교육은 건강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행복드림사업 등) 또는 민간기관들을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를 활용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부모교육이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은 효과성 검증을 통해 질적 담보가 된 것일 때 이 제안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다.

넷째, 아동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은 순차적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임적 양육은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함(Koo, 2016; Song, *et al.*, 2015)으로써 학교를 아동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학교를 아동인권 친화적인 환경으로 인지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Hyun, 2016),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Brière, *et al.*, 2013; Hendron & Kearney, 2016; Wang, 2009)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며, 학교환경구축을 위해 커리큘럼에 인권교육의 도입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아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교육은 아동에게도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옹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O'Neill, 2007). 다만, 이러한 영향은 1회성 또는 강의형 인권교육이 아닌 학교커리큘럼 내에 녹아진 체계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아동인권교육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방임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다음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여야 하며,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방임을 묻는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0.61이었는데, 방임을 질의하는 문항의 특성상 내적 합치도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한 유형의

방임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방임도 반드시 경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건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학대 또는 비행을 측정하는 도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Kim & Lee, 2014; Mazerolle & Maahs, 2000). 추후 직접 응답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처럼 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주의 방임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대의 하위유형 중 방임만을 선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나 방임 하위유형이 중복해서 발생할 비율이 절반정도 되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방임 및 학대에 노출되는 경험은 범죄나 학교폭력과 같은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Finkelhor, *et al.*, 2015). 추후 연구에서 중복학대의 높은 실제 발생률을 고려하고 방임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연구모델에 포함하여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보다 현실에 기반한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미 구축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와 친구에 의해 존중받은 경험과 학교의 규칙 등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립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되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0; UNICEF, 2018). 예컨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2010)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여덟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참여와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학교,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 학생 중심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총체적인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올바른 징계기준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

학교, 그리고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존중하고 역량강화에 노력하는 학교. 추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학교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이상의 요소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 References

- A, Ju Young, Hyung Bin Kim, and Nan Hee Lee. 2019.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Self-Esteem on Smartphone Overuse: Self-esteem Mediation: A senior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4): 211-228.
- Ah, Young Ah. 2016.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Being Respected for One's Human Rights and Bystanders Role in School Violence of Youth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40: 75-98.
- Ah, Young Ah and So Hyun Park. 2018. Path Analysis of the School Dropout Intentions of Adolescents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4: 75-97.
- An, Hyung Sook. 2014. An Effect of Parental Abuse Experience on Self-Esteem amo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185-203.
- Baraldi, A. N. and C. K. Enders. 2010. An introduction to modern missing data analys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1): 5-37.
- Birmaher, B., D. Brent, W. Bernet, O. Bukstein, H. Walter, R. S. Benson, A. Chrisman, T. Farchione, L. Greenhill, J. Hamilton, H. Keable, J. Kinlan, U. Schoettle, S. Stock, K. K. Ptakowski, and J. Medicus. 2007. Practice parameter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11): 1503-1526.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Basic Books: 1-399.
- Brière, F. N., S. Pascal, V. Dupéré, and M. Janosz. 2013. School environment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multilevel longitudinal study. *Pediatrics*. 131(3): e702-e708.
- Brown, R. C., S. Heines, A. Witt, E. Braehler, J. M. Fegert, D. Harsch, and P. L. Plener. 2018.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on Non-suicidal Self-injury: Data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General Population. *BMC Psychiatry*. 18(1): 1-8.
- Cheon, Jeong Woong and Sun Hee Park.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th Social Capital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 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4(4): 151-161.
- Child Welfare Act, Act No. 16248. 2019. <http://www.law.go.kr/LSW/main.html>
- Cho, Han Ik. 2016. The Level of Happiness and Depression during Childhood.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5(1): 277-292.
- Choi, Kyung Suk and Ha Na Song. *Developmental Psychology*. Gyomoon.
- Cicchetti, D. and S. L. Toth.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ovell, K. 2010. School Engagement and Rights-Respecting School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0(1): 39-51.
- e-country index. 2018. *School Enrollment Rates*.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Erickson, M. F., M. H. Labella, and B. Egeland. 2018. Child Neglect. In Klika, J. B. and J. R. Conte. (ed.),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127-144. The United States: SAGE Publication.
- Ersoy, E. 2018.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Self-esteem in Predicting Secondary School Students' Depression.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3(3): 299-309.
- Finkelhor, D., H. Turner, A. Shattuck, S. Hamby, and K. Kracke. 2015.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Crime, and Abuse: An Update. Retrieved June 18, 2018, from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s://www.ojjdp.gov/pubs/248547.pdf>
- Fiorvanti, C. M. and M. R. Brassard. 2014. Advancing Child Protection through Respecting Children's Rights: A Shifting Emphasis for Schoo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Review*. 43(4): 349-366.
- Gordon, R. S. 1983. An oper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prevention. *Public Health Reports*. 98(2): 107-109.

- Ha, Jong Min. 2011. The Influence of Degree of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Teachers on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Han, Si Eon and Jae Hong Jang. 2017.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se Experi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4(1): 69-87.
- Hendron, M. and C. A. Kearney. 2016. School climate and student absenteeism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Children & Schools*. 38(2): 109-116.
- Hong, Na Mi and Eun Ei Yim.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Abuse on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ed by Peer-Alienation and Cell-phone Dependenc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3): 417-436.
- Hong, Se Hee.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ng, Soon Hae, Sook Young Lee, Mi Soon Won, and Jung Eun Han. 2016. Impact of the Anger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Ways to Express Anger: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Rights-Friendly Classroom Culture. *Journal of Youth Welfare*. 18(1): 185-209.
- Hyun, An Na. 2016. The Role of Human Rights Friendly Parental Attitudes and Schoo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5: 187-212.
- Infurna, M. R., C. Reichl, P. Parzer, A. Schimmenti, A. Bifulco, and M. Kaess. 2016.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specific childhood experiences of abuse and neglect: A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0: 47-55.
- Jeong, So Hee and Jin Sook Kim. 2017.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to Ego Resilience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3): 253-270.
- Jo, Ok Ja and On Kang Hyun. 2005.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and of Child's Capacity for Self-Regulation on Child's Depressive Tendencies(D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3): 141-161.
- Joslyn, E. 2015. *Resilience in Childhood: Perspectives, promise & practice*. Palgrave MacMillan: 1-232.
- Ju, S. and Y. Lee. 2018.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Peer Attachment, Child Maltreatment and Depression on Early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76: 353-363.
- Jung, Pyung Hwa, Choong Rai Nho, Kyeong Sun Lee, Min Hyeon Sung, and Jae Duck Song. 201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Cell Phone Addiction: Gender Comparis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7: 93-123.
- Jung, Yoon Mo and Ki Young Lee. 2016.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Children's Development and Behavioral Problem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Poverty-.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2(1): 123-168.
- Khaleque, A. 2015. Perceived parental neglect, and children'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negative personality dispositions: A meta-analysis of multi-cultural stud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5): 1419-1428.
- Kim, Hye Gum and Hye Young Jo. 2016. The Effect of Child Neglect and Abuse by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2(1): 19-36.
- Kim, Jung Wook and Jae Ho Kim. 2018.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s of Upbringing,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and Career Awareness. *The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24(1): 111-132.
- Kim, Kwang Hyuk. 2009.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Sciences*. 24(2): 27-45.
- Kim, Mi Young and Hyun Hee Chung. 2015.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4(3): 101-116.
- Kim, Myoung Jin and Sook Lee. 2015. The Influences of Parental Empathy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9(3): 1-18.
- Kim, Pyeong Hwa and Hye Mee Yoon. 2014. Mediating Effect of Shame in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8(4): 601-620.
- Kim, Pyeong Hwa and Kyeong Sang Lee. 2018. The Impact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School Dropout Adolescent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by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0): 175-203.
- Kim, Sang Ok. 2018. The Effects of Peer Communication, De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Suicidal Ideation among Childre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4(2): 213-230.
- Kim, Sang Won and Yang Hee Lee. 2014. Feasibility of Conducting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hild Maltreatment: Using ISPCAN Child Abuse Screening Tool-Retrospective Version (ICAST-R).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18(1): 27-47.
- Kim, Soo Jung. 2015. Ego-resiliency as a Mediator between Child Abuse and Emotional Problems of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47-76.
- Kim, Yong Hoi and Chang Keun Han. 2017. Path Analysis on Child Abuse and Neglect, Self-Esteem,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mong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8: 141-170.
- Kim, Young Hyun and Jee Yeon Lee. 2013. The Effect of Child's Perceived Parents' Attachment on Anger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Thoughts, and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1(3): 3-16.
- Kim, Young Shin and Ga Na Park. 2014. The Effects of Human-Rights-Friendly Classroom Culture on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21(3): 85-10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o, Jeong Hwa. 2016.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on Victimiza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School Violence of Primary School Student.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9(1): 1-25.
- Lee, Byung Do and Eung Ryul Choi. 2016. Influence of Juvenil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Violent Crime on Suicidal Ideation: Comparison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59: 67-90.
- Lee, Chung Kwon and Hye Rin Yang.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Teacher-Student and Peer Attach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Neglect,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Welfare*. 19(1): 29-55.
- Lee, Hye Jeon. 2017. Parent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Emotion Understanding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9): 457-483.
- Lee, Jung Seb and Sang Hyun Mo. 2012. The Effect of Democratic School Management on Youth's Social Development: The Mediation of Democratic School Rule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281-308.
- Lee, Min Hee and Yeon Ha Kim. 201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1(2): 119-134.
- Lee, Min Joo, Ick Joong Chung, Ok Kyung Yang, and Eun Kyung Bae. 2018. The Effects of Children's Rights-related Experiences on School 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2: 263-286.
- Lee, Sung Hoe and Ji Young Yoon. 2016.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461-480.
- Lee, Yang Hee and Sang Won Kim. 2013. Implementing International Children's Rights Norm. *Sungkyunkwan Law Review*. 25(2): 311-332.
- Lee, Yeon Soo, Hyo Jung Kim, and Hee Kyoung Kim.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of Human

- Righ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2): 413-442.
- Lee, Yoon A. 2014. Parents Abuse and Neglect of the Effect of School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 Lee, Young Gwang, Yong Soo Song, and Seong Man Shin.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Children'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Poster presented at the 2016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 Y. and R. M. Lerner. 2011. Trajectories of School Engagement during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Grades, Depress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47(1): 233-247.
- Lim, Myung Hee, Yoon Jo Park, and Seong Hyun Kim. 2018. The Affects of Self-Regulat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Self-Esteem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3(4): 85-103.
- Maguire, S. A., B. Williams, A. M. Naughton, L. E. Cowley, V. Tempest, M. K. Mann, M. Teague, and A. M. Kemp. 2015. A Systematic Review of the Emotional, Behavioural and Cognitive Features Exhibited by School-aged Children Experiencing Neglect or Emotional Abuse.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41(5): 641-653.
- Mazerolle, P. and J. Maahs.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 *Justice Quarterly*. 17(4): 753-778.
- Min, Hae Young and Sook Jung Kang. 2015.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165-176.
- Ministry of Educa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2014. *Creating School with Respect, Communicatio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2017 Children's Business Part.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Child Abuse and Neglect 2016*.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 Moon, Ehun Shik. 2014.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nfluencing Middle School Students' Levels of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2): 23-36.
- Moon, Soo Back.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jis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0. *Advanced course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teachers: Creating School through Human Rights*.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336459>.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Rights of Youth & Children - Outline of Survey. <http://archive.nypi.re.kr/contents/siteMain.do>
- Norman, R. E., M. Byambaa, R. De, A. Butchart, J. Scott, and T. Vos. 2012. Th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of chil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icine*. 9(11): e1001349.
- OHCHR.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 OHCHR. 2011. GC 13.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
- Oh, Sun Young. 2016. The Effect of Children's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Situation and Sensitivity to Human Righ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O'Neill, K.(ed.). 2007. *Getting it Right for Children: A Practitioners' Guide to Child Rights Programming*. UK: Save the Children.
- Onwuegbuzie, A., K. M. T. Collins, and R. K. Frels. 2013. Foreword: Using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to frame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ple Research Approaches*. 7(1): 2-8.
- Park, A. and Y. Kim. 2018.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Child Maltreatment on Child Obesity in South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Low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7: 34-40.
- Park, Ae Ly. 2014. The Effect of Perceived Neglect on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397-416.

- Park, Eun Mie. 2017. The Effects of Primary Caregiver's Parenting Attitude 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of Youth in Group Home and Foster Home Car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5(1): 197-208.
- Park, Eun Min.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Park, Eun Young. 2011. A Study on Factors of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7.
- Park, Jae Sook. 2010.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Rights Guarante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1): 35-59.
- Park, Mee Hye and Won Seok Choe. 2017. Influence of Human Rights Respect and Stress of Adolescents on their Self-Concept.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4: 109-133.
- Park, Young Joon and Hyo Jung Sung. 2014. The Impact of Abuse Experience from Caregiver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6: 85-11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2017.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Rosenberg, M. & R. H. Turner. (ed.).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593-624. New York: Routledge.
- Salokangas, R. K. R., T. From, S. Luutonen, and J. Hietala.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Leads to Perceived Negative Attitude of Others and the Effe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Depression in Adulthood is Mediated via Negative Attitude of Others. *European Psychiatry*. 54: 27-34.
- Shaffer, D. R. and K. Kipp. 2014.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Song, Gil Yeon, Ji Yeon Lee, Yoo Kyeong Jang, and Yoon Kyeong Jeong Translator, Trans. Pakyoungstory: 1-669.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4).
- Shin, In Soon and Na Mi Hong. 2014.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Health: The Mediation of Neglect and Depression.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4(1): 5-25.
- Shin, Ji Hyun and Hyun Ah Kang. 2018.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4: 1-22.
- Shin, Yoon Ji and In Suk Choi. 2019.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Perception of Human Right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1255-1273.
- Sohn, Byoung Duk and Kay Heoung Heo. 2016. Analysis of Influencing Variables on Child' Self-Esteem :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buse · neglect, peer communication, and teacher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0): 317-337.
- Song, Jin Yeong, Yong Soon Park, Cheol Gi Yeom, and Sung Sook Choi. 2015. The Influence of Adolescent Abuse of Parents on School Life Adaptation :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Frequency of Internet U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30: 57-85.
- Sperry, D. M. and C. S. Widom. 2013. Child Abuse and Neglect, Social Suppor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A Prospective Investigation. *Child Abuse & Neglect*. 37: 415-425.
- Sutton, T. E. 2018. Review of attachment theory: Familial predictors, continuity and change, and intrapersonal and relational outcomes. *Marriage & Family Review*. 1-22.
- UNICEF. 2018. What is a rights respecting school. <https://www.unicef.org.uk/rights-respecting-schools/the-rrsa/what-is-a-rights-respecting-school/>
- Wang, M. 2009. School climate support for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4): 240-251.
- Wenar, C. and P. Kerig. 201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Lee, Chun Jae, Hyun Lan Seong, Gil Yeon Song, Hye Kyung Yoon, Hye Ri Kim, Hye Won Park, Yu Kyung Jang, and Yun Kyung Jung Translator, Trans. Pakhaksa: 1-777.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1)
- Wolock, I. and B. Horowitz. 1984. Child maltreatment as a social

- problem: the neglect of negl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4): 530-543.
- Won, Mi Jung and Younn Jung Gong. 2017.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6(3): 285-299.
- Woo, Su Jung. 2017.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13(4): 37-51.
- Yoo, Jeong Ah and Ick Joong Chung. 2014. The Effects of Neglect on Early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7: 157-183.
- Yoon, Hye Mee. 2017.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Abuse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1): 173-206.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존중과 소통,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학교만들기.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 구정화. 2016. 가정환경 요인이 초등학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9(1): 1-25.
-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교원인권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인권으로 '통하는' 학교만들기. 국가인권위원회.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336459>.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명진, 이숙. 2015. 부와 모의 공감능력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9(3): 1-18.
- 김미영, 정현희. 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4(3): 101-116.
- 김상욱. 2018. 아동의 또래 간 의사소통, 우울감 및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213-230.
- 김상원, 이양희. 2014. 아동기 학대경험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 *아동과 권리*. 18(1): 27-47.
- 김수정. 2015. 아동학대가 초등학생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1: 47-76.
- 김영신, 박가나. 2014. 친인권적 교실 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연구*. 21(3): 85-100.
- 김영현, 이지연. 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노정서의 관계에서 분노사고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3): 3-16.
- 김용희, 한창근. 2017.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방임과 학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권의식의 경로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8: 141-170.
- 김정옥, 김재호.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인식과의 관계. *실과교육연구*. 24(1): 111-132.
- 김평화, 윤혜미. 2014. 아동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18(4): 601-620.
- 김평화, 이경상. 2018. 부모학대 및 방임 경험이 보호관찰소 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175-203.
- 김혜금, 조혜영. 2016.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19-36.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은식.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1(2): 23-36.
- 민혜영, 강숙정. 2015.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건강증진행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65-176.
- 박미혜, 최원석. 2017.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스트레스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생명연구*. 44: 109-133.
- 박애리. 2014. 지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97-416.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박은미. 2017.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보호청소년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5(1): 197-208.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 13(3): 75-88.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1): 35-59.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손병덕, 허계형. 2016. 아동의 자아존중감 영향변인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방임·학대, 또래 의사소통·소외,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317-337.
- 송진영, 박용순, 엄철기, 최성숙. 2015. 부모의 청소년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의존도와 인터넷이용빈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30: 57-85.
- 신윤지, 최인숙. 2019.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255-1273.
- 신인순, 홍나미. 2014.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방임과 우울의 매개효과. 글로벌사회복지연구. 4(1): 5-25.
- 신지현, 강현아. 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 1-22.
-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2019. 2019년 2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에서 검색.
- 아영아. 2016.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40: 75-98.
- 아영아, 박소현. 2018.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영향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학교사회복지. 44: 75-97.
- 안형숙.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 어주영, 김형빈, 이난희. 2019.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초등학생 고학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211-228.
- 오선영. 2016. 아동의 인권침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상황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우수정. 2017.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37-51.
- 유정아, 정익중. 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 윤혜미. 2017. 아동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8(1): 173-206.
- e-나라지표. 2018. 취학을 및 진학을. 2018년 10월 5일,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에서 검색.
- 원미정, 공윤정. 201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285-299.
- 이민주, 정익중, 양옥경, 배은경. 2018.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2: 263-286.
- 이민희, 김연하. 2017. 남녀 대학생들의 아동기 외상적 경험과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1(2), 119-134.
- 이병도, 최응렬.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59: 67-90.
- 이성희, 윤지영. 2016.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461-480.
- 이양희, 김상원. 2013. 국제아동인권규범의 이행: 아동권리협약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5(2): 311-332.
- 이연수, 김효정, 김희경. 2015. 교내 인권침해와 학교부적응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2): 413-442.
- 이영광, 송용수, 신성만. 2016.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우울 간의 관계: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91-391.

- 이윤아.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이중섭, 모상현. 2012.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281-308.
- 이충권,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 이혜진. 201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457-483.
- 임명희, 박운조, 김성현. 2018.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갈등해결전략 및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3(4): 85-103.
- 정소희, 김진숙. 2017.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초등학교와 중학생 간 비교. 상담학연구. 18(3): 253-270.
- 정윤모, 이기영. 2016. 부모의 방임이 자녀의 발달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2(1): 123-168.
- 정평화, 노충래, 이경선, 성민현, 송재덕. 2014.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및 성별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47: 93-123.
- 조옥자, 현은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조한익. 2016.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과 우울수준. 아동교육. 25(1): 277-292.
- 천정웅, 박선희. 2016.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4): 151-161.
- 최경숙, 송하나. 2010. 발달심리학. 교문사.
- 하종민. 2011. 교사의 인권존중정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개요.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contents/siteMain.do> 에서 검색
- 한시연, 장재홍. 2017.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69-87.
- 현안나. 2016. 친인권적 부모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학교사회복지. 35: 187-212.
- 홍나미, 임은의. 2016.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소외와 휴대폰 의존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0(3): 417-43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 19(1): 161-177.
- 홍순혜, 이숙영, 원미순, 한정은. 2016. 중학생의 분노수준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친인권적 교실문화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1): 185-209.
- e-나라지표. 2018. 취학률 및 진학률. 2018년 10월 5일,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에서 검색.
- Shaffer, D. R. and K. Kipp. 2014. 발달심리학. 송길연, 이지연, 장유경, 정윤경 역. 박영스토리.
- Wenar, C. and P. Kerig. 2011. 발달정신병리학: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춘재, 성현란, 송길연, 윤혜경, 김혜리, 박혜원, 장유경, 정윤경 역. 박학사.

Received: Mar. 4, 2019 / Revised: Apr. 11, 2019 / Accepted: Apr. 19, 2019

## 방임적 양육방식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방임,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그 경로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하는 2016년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초등학교 4~6학년 응답(N=3,799)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은 아동의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은 방임적 양육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경로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과 자아존중감이 순차적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적 양육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방임적 양육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구축 및 자아존중감 향상훈련과 관련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방임적 양육, 우울감,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아동

Profiles **Han Byeol Yu** : She received her B.A.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studying for a master's degree i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resilience, refugee, social capital, and child rights(yhb7537@skku.edu).

**Sang Won Kim** : She is currently a research fellow at the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and also serves as adjunct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child abuse, violence against children, family/peer/community relationships, social capital, and child rights(sangwoninkorea@gmail.com).

**Yang Hee Lee** :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S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nd has been a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2013 and has served as its chair from 2007-2011. She has been the guiding force in the drafting, negotiation, and adoption of the third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S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children's rights, child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leeyh@skku.edu).